

[學 會 消 息]

■定例學術發表會

一. 제17회

일시 : 1991년 9월 28일(토요일) 오후3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제1주제 : 현종당시 禮訟에 대한 법학적 접근

발표 : 李 東 科(청주대)

제2주제 : 韓末의 법률기초기관

발표 : 鄭肯植(한국법제연구원)

二. 제18회

일시 : 1992년 1월 24일~25일(금·토요일)

장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3층 시청각실

제1주제 : 寺位田의 소유권 분쟁(淸道 雲門寺를 중심으로)

발표 : 김갑주(동국대)

제2주제 : 朝鮮土地調査事業의 近代的 性格

발표 : 宮島博史(日本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토론 : 李浩哲(경북대)

제3주제 : 韓末의 변호사

발표 : 김효전(동아대)

토론 : 정공식(한국법제연구원)

제4주제 : 옛 중국의 家父長權

발표 : 윤재수(前 동아대)

三. 제19회

일시 : 1992년 4월 18일(토요일) 오후2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2층 국제회의실
- 제1주제 : 나찌법학에 대한 眺望
발표 : 강진철(연세대 박사과정 수료)
토론 : 강희원(경희대)
- 제2주제 : 나찌의 私法秩序 —所有權을 중심으로—
발표 : 尹喆洪(광운대)
토론 : 김성태(경희대)
- 제3주제 : 資料를 통해본 西洋法史
해설 : 崔鍾庫(서울대)

四. 제20회 <역사적 관점에서 본 宗中問題>

- 일시 : 1992년 7월 3일~4일(금·토요일)
장소 :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강당
- 基調發表 : 宗中問題를 보는 視覺
朴秉濠(서울대)
- 제1주제 : 조선시대 宗法制의 수용과 정착과정
발표 :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 제2주제 : 宗中에 관한 判례분석 —朝鮮高等法院·大法院—
발표 : 정궁식(한국법제 연구원)
이우석(영남대 강사)
- 제3주제 : 東萊 鄭氏 사례발표
발표 : 정무수(출판인)
- 제4주제 : 仁川 蔡氏 사례발표
발표 : 채광식(한학자)
- 종합토론 : 이수건(영남대) 손한기(영남대)
성교진(효성여대) 박은수(변호사)

■會員 動靜

- 玄勝鍾 고문은 92년 10월 6일자로 國務總理에 就任하여 중요시점에 처한 국정수행에 전념이시다.

- 朴秉濠 회장의 還甲紀念論文集 贈呈式이 지난 91년 10월 31일 프라자 호텔 덕수홀(22층)에서 있었다. 이 논문집은 삼십여년을 韓國法史學과 家族法學의 연구에 진력해온 박병호 교수님의 學德을 기리고자 동료·후학·제자들이 정성을 모은 것으로 두 권으로 엮어져 있다.
제1권은 「家族法學論叢」으로 개정가족법(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의 중요문제와 가족법의 핵심논점들을 망라하는 37편의 논문(750면)을 수록하였으며, 제2권은 「韓國法史學論叢」으로 朝鮮時代를 기점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韓國法史上의 중요문제들을 총30편의 논문(638면)으로 정리하고 있다.
회갑날인 5월 13일을 5個月여 지난 이날 논문집 奉呈의 자리에는 700여명의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 朴秉濠 회장은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中國北京에서 韓國法學院과 中國法學院이 공동으로 주최한 學術大會에서 「韓國에서의 法과 倫理道德」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박병호 회장은 中國法史學界와의 교류 및 94년에 있을 국제학술대회(한국 법사학회 주최) 준비에 관하여 중국측 학자들과 의견을 나눈후 귀국하였다.

- 본학회 이사 최종교수(서울대 법대)는 1992년 10월 7-9일 중화인민공화국 남경(南京)시 남경대학 德中經濟法研究所(Deutsch-chines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recht)에서 주최한 국제심포지움 「동아시아의 법·경제·문화」(Recht, Wirtschaft und Kultur in Ostasien)에 참석하여 「서구법이 한국법문화의 사회관계에 미친 영향」(Einwirkung der Rezeption westlichen Rechts auf die sozialen Verhältnisse der

Koreanischen Rechtshultur)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동년 12월 6-8일 북경(北京)시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움「헌법과 민주정치」(Constitution and Democratic Politics)에 참가하여「한국에서의 헌법과 민주주의」(Constitution and Democracy in Korea)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심포지움을 통해 同대학 학장이며 中國法制史學會 회장인 曾憲義(Zeng Xiani)교수와 한중간의 法史學 交流에 관한 협의도 하였다.

- 지난 4월 18일 제19회 定例학술발표회를 마친 후 學會運營전반에 관한 논의를 위해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박병호 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이사들은 學會의 보다 효율적 발전방안과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학회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들의 연회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 본학회 제20회 학술발표회(92년 7월 3일~4일,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강당)를 마친후 영남대 김기동 총장과 법과대학 변재욱 학장이 참석회원을 위한 리셉션을 베풀었으며, 아울러 학회진행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李鎔佑 변호사는 본 학회의 운영기금으로 20만원을 기탁하였다.
- 李世薰 韓國法制研究院長은 본학회 제20차 정례학술발표회에 화환과 20만원의 학회 발전기금을 기탁하였다.
- 沈羲基이사는 지난 9월 「한국법사연구」를 영남대 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 韓基宗 會員이 92년 1월 國立台灣大學에서 「朝鮮朝經國大典與 中國傳統法律思想」(指導教授: 馬漢寶)으로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 韓相敦 會員이 92년 12월 國立台灣大學에서 「中韓傳統刑律之 “主觀主義” 立法 -

特別注重關於殺傷罪的 故意犯·過失犯—」(指導教授：韓忠謀·林文雄)으로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 權貞姬 會員이 93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養子法の 改正을 위한 比較法的 研究」(指導教授：金疇洙)로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 姜眞哲 會員이 93년 2월 연세대학교에서 「法解釋學에 대한 考察—특히 철학적 해석학의 법학적 수용과 관련하여—」(指導教授：梁承斗)로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 法史學과 民法學에 큰 업적을 남기신 故 晴軒 金曾漢先生님의 私法學發展 遺志를 받들어 유족들에 의해 晴軒法律文化財團이 設立되었다.
韓國法學의 發展과 우리사회와 時代가 要求하는 法文化 創建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될 晴軒法律文化財團은 그 첫 작업으로 「私法研究」第1集(靑林出版社, 1992)을 發刊하였다.